

## 인간발달학적 관점이라면 조기 유학은 더욱 문제가 있다

이경자(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작년 조기 유학생 수가 3만5천명을 넘었고 그중 순수 유학목적이 20,400명(부모해외파견 시 동반이 8000명, 해외이민이 6800명)이라하니 조기 유학은 우리 속에 널리 퍼져있고 조기 유학 욕구의 잠재성을 따지면 이미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숫자로 파악되기 이전부터 주위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하며 정부의 실태 파악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본 자료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교육청의 기본자료만 파악 만 해도 나오는 수치를 교육부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며 또 일부 계층의 문제라고 방치하는 동안 <표 1-1>에서 보듯 초등의 경우 2000년의 705명에서 2005년 8148명으로 불과 5년 사이에 무려 11.6배로 늘었고 전체 평균은 4.6배로 집계될 만큼 그 증가 속도는 놀랄 만하다.

그 동안 조기 유학의 득과 실에 대한 논의가 종종 있어 왔으나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해도 계속 늘기만 하니 득실의 문제를 떠나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는 것만이 적극적인 대처가 될 터인데 언제나 그 대책이 나올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번 인간 발달학회에서 ‘인간발달학적 관점에서 조기유학의 득과 실’을 보신다니 반갑고 필요한 일이며 그렇기에 학부모 입장에서 더욱 확실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 인간발달학적 관점과는 거리가 있는 하위 연구

### 1) 최근의 조기유학의 추세나 경향을 도피성 유학에서 도약성 유학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신 전체 발제의 요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것의 근거를 유인 요인과 발인 요인으로 구분해 비율(54:15)로 제시함으로 합리화하려 했는데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유학의 이유가 되는 현실에서 도피가 아니라 도약이기 때문에 과거의 유학보다 우호적으로 봐 주어야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 보였다. 물론 최근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도약성 조기유학의 경향이 포착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건 일부이고 여전히 가진 조건을 이용해 기회를 선점하려는 노력이 많다고 본다. 물론 동전의 앞. 뒤면 같지만 이런 논리는 오히려 거부감이 든다.

과거의 유학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도피성이 아니라 도약성이었을 것이니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에 무리한 구분 같다.

### 2) 우리나라 만 유독 조기 유학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나?

선진국에서는 조기 유학을 보낸다는 얘기를 별로 들은 적이 없다.

부모의 직장관계로 해외에서 Internatinal school에 다니는 경우 외에 어린 시절 혼자 또는 가족(아버지)과 떨어져 수년간 외국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없지 않은가?

인간 발달적 측면으로 볼 때 유, 초, 중 시절은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 유지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생활 습관, 국가관 또 개인의 정체성 형성 등이 중요한 시기로 선진국일수록 16세 이전의 독립을 꺼리는 실정인데 우리는 외국어 습득이나 미래의 학력 선점을 위해 집을 떠나 그것도 타국에서 문화충격과 외로움을 겪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교육적 선택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중국도 유학생을 많이 배출하지만 우리 인구와 대비해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유학생 수가 중국을 능가했다는데 10억: 5천만으로 보면 무려 20배나 되니 비교가 안 되는 수치이다. 일본도 조기 유학은 고사하고 석, 박사 유학마저도 이미 줄어 점차 자국에서 취득한 학위를 더 인정한다는데 이것은 유학의 득실에 대한 평가가 바탕이 된 것이고 자국 교육에 대한 자부심인 동시에 부작용을 줄이려는 현실적 대책으로 보인다.

### 3) 유학 1, 2세대의 결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실정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현 상태의 증가 추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에서 평균 성적 이상의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가고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학부모가 물심양면의 지원과 관심을 쏟는데 연구 결과에서 보이는 학업실태, 적응, 만족도 정도는 어찌 보면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1세대 유학의 고 부가가치에 비

해 2세대 유학의 투자대비 효용성은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지나친 투자로 인한 경쟁력의 저하로 낭비성이 짙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GNP규모, 경제 상황 등으로 볼 때 이런 엄청난 해외 교육투자는 외화의 유출이고 실로 문제가 될 것 같다.

4) 유학기간이 길어질수록 본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어난다는 것은 귀국 후의 현실적응에 대한 염려와 문화나 여건 등 현실적 문제가 고려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5) 어린 시절의 타 문화 체험이 결코 유학의 목적인 국제화된 전문 인력양성이나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기 유학생이 늘면서 오히려 현지인 친구보다는 끼리끼리만 사귀게 되어 더욱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깊어질 우려가 있고 인적 네트워크 구성은 말 뿐인 경우가 될 수 있다.

조기 유학이 아닌 대학, 석, 박사 시절의 유학이 더욱 준비된 상황이고 필요성과 책임감 노력에 따른 실질적 국제화 교육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타 문화 체험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타 문화체험의 효과에 대한 질적 접근 연구는 연구 대상 선정이 표본이 되기에는 불충분했고 특히 조기 유학생인 초중생의 유학기간이 짧아 진정한 표본이 되긴 어려웠다고 판단되나 연구 결과에 있어서는 문답식이어서 많은 내용을 얻은 것 같다.

6) 투자에 비해 소득이 너무 적다.

유학 후 외국에 성공적 정착이 쉽지 않은 것은 즉 배울 만큼 배웠으면 우리 일자리를 빼앗지 말고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밀어내는 것으로 결국 우리에게서 취할 것만 취하겠다는 얘기로 그 나라의 유학 정책의 내용이다. 수년간의 노력이 주류사회로의 편입이나 선진세계로의 입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거의 다 돌아 올 거라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기러기 아빠로 대표되는 사회문제, 교육의 공백등 투자의 결과치고는 너무 형편없는 성적표다. 고작 언어와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의 만족한 교육만 남는다면 억울하단 생각이다. 결국 성과가 사장되는 투자는 실패한 투자 아닌가?

국내의 교육이 불만 요인이 되어 떠나간 것이라면 만약 그것을 채워 줬더라면 하지 않아도 됐을 투자고 유학인데 이것을 도약성 유학이라고 권할 수 있을까!

유학 대상국입장에서는 우리 유학생들이 대단한 수입원이고 학교의 생존 전략이며 그 부모들까지 방문해 소비를 해 주니 환영할만한 국가산업인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들의 호구역할을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한다.

대책이 시급하다.

**1) 학교선택권을 돌려 달라.**

유학은 100% 본인의 선택이고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한 학교 선택이 기본이기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획일화 된 교육을 강요하며 강제 배정하는 것은 학생을 국내에 있을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국가가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 내는 것이다. 이미 알것을 다 알아 버렸으니 어쩔 수가 없다. 학교 선택권만 열어 놓으면 학교는 살아 남기위해 공부를 시키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스스로 변화할 것이고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학교를 찾아 선택함으로써 해외 조기유학은 현격히 줄 것이다.

**2) 기숙사 확보는 앞선 시대 교육의 좋은 조건이다.**

아이들과 떨어져 멀리서 지원하고픈 학부모의 욕구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

유학의 매력으로 기숙학교에서 안심 할 수 있다는 학부모가 많다는 점에 집중해야한다. 국내에서도 과학교, 자사고등 기숙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날로 증가하듯 이 조건이 충족 된다면 상당 부분 유학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녀의 자립심, 독립심을 키우고픈 학부모의 바람과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학생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유학 보내고 만족하는 학부모의 속마음을 읽어야 한다. 한번 편하고 좋은 것을 알면 다른 손해를 감수할 의지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3) 학생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내가 하고픈 공부를 필요해서 또 그 공부가 가치가 있다면 한국에 있을 때 보다 공부시간이 늘어나도 기꺼이 하고 불만이 없다지 않은가.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인색 하고픈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부만 하긴 싫다. 다양하고 질 높은 취미활동과 선택 교육이 보장되며 강도 높은 어학 교육이 가능하다면 누가 사교육에 매달리며 또 고생을 사서하러 큰 돈 들이고 조기유학을 가겠는가?

제발 나라 안에서 제대로 교육 시키자. 학교 선택권만 주면 이제 학교가 남아도는 시대가 되니 알아서 변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될 것이다.

**4) 대학 교육 개방을 이용하자.**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학벌에 대한 맹신은 가히 병적이다. 부유한 젊은 학부모들은 더 하다고 한다. 부모의 학력으로 인해 혜택을 본 그들의 시각은 이미 고정되어 초6, 중 1-2정도에 자녀의 명문 대학 입학을 점치고 불가능해 보이면 조기 유학을 고려한다니 조기유학을 감행할 실질적 능력 집단이란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부모 대상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있으니까 맘대로 하라기엔 심각해 보인다.

온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명문대 병을 깨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교육 개방을 이용하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학생 급감에 따른 대학의 생존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물 타기를 통해서라도 과열된 일류병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대학에의 자극이 필요한 시점이니 외국 대학의 유치를 통해서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좋은 대학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기유학을 찬성하고 권장하고픈 마음이 없다.

물론 조기 유학이 필요한 학생에겐 기회를 주어야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겠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개입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책임 회피라 본다.

설사 도약성 유학이라 해도 다 때가 있는 것이고 원칙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국가의 미래가 달리고 국부와 밀접하며 사회의 위화감, 분위기 확산 등 사회 문제와 직결된 것이라면 더 이상의 방치는 안 되겠다. 사고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면 줄일 수 있는 문제를 정책유지 라는 미명으로 막는 우를 한시바빠 털었으면 좋겠다.

조기유학 1등 국가라는 것은 영예가 아니라 오명이란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사태를 직시하기 바란다.